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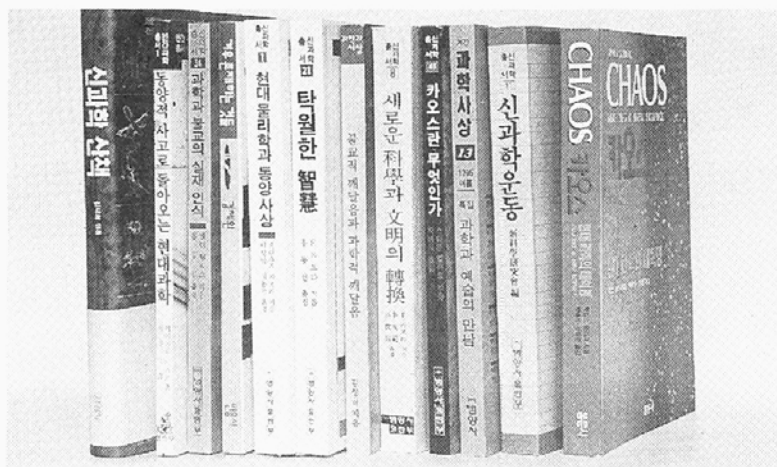
“불교사상 토대 신과학 이론 정립”

우주의 진리 불법서 찾는 서적 출간 ‘러시’

신과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불교와 과학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두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활발히 소개되는 신과학을 통해 불교와 과학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신과학이 애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과학산책〉(김재희 엮음, 김영사) (카오스) (제임스 글리크, 동문사)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K.카프카, 범양사)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M. M) (탁월한 지혜)(M. M) (과학과 불교의 실제 인식)(앨런 윌리스, 범양사) (신과학운동)(이용희 외, 범양사) 등이 주목되는 책들이다.

지금까지의 과학, 즉 기계론이 표방하는 물리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과학으로 설명하는 신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가르침

신과학 운동 출발점

의 세계는 절도있게 질서잡혀 있으며 우주전체가 마치 틀나바퀴로 이어진 기계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세계관이다.

이와는 달리 신과학은 모든 유기체가 서로에게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체적 전체론적 인식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것은 기계론 결정론의 세계관으로 증빙상태에 놓인 현대문명을 진단, 새로운 문화의 대두에 의한 새로운 문명의 출현을 예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등의 이론적 성과를 근거로 한 신과학은 기계론에 바탕한 기성문명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문명을 모색하기 위해 유기체적 사고로 전환

하자는 일종의 사상운동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신과학은 그 출발점에서 불교의 세계관과 밀접한 사상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다. 〈동양의 사고로 돌아오는 현대과학〉의 저자 이시카와 미츠오는 “과학은 설명되어지는 것이었지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로 사고의 전환을 강조한다. 부처님은 추상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명제와 상통한다.

신과학의 대표적 논자는 K.카프카,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에서 카프카는 현대물리학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상·우주관을 현대의 여러 학문분야로 확산시켜 현대문명 전체를 비판하고 새로운 세계관과 학문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양사상〉에서는 유기체적 세계관이 담겨 있는 불교 도교 등 동양사상의 경전들을

인용하면서 동양사상의 우주관과 현대물리학의 자연관과의 유사점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불교를 통해 신과학을 설명하는 책으로는 〈동양적 사고로 돌아오는 현대과학〉(과학과 불교의 실제 인식)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책은 불교의 선과 ‘색즉시공 공즉시색’ 등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현대과학의 기초에 적용하고 있다.

신과학이 주로 외국학자의 저작인 점에 반해 〈신과학운동〉은 국내의 학자들이 신과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신과학과 현대물리학의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풀어쓴 입문 또는 개론서로는 〈신과학산책〉(카오스) 〈겨우 존재하는 것들〉 등이 있다.

정성운 기자

‘신과학’은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원리와 상보성 원리,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 등을 토대로 홀로그래피의 이론, 일반시스템 이론 등이 연관되면서 ‘신과학운동’이라는 새로운 불결을 일으키고 있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따르면 주관(관찰자)과 객관(관찰대상)은 따로 떼어서 논할 수 없고, 물질과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소립자라는 극미의 세계와 우주라는 극대의 세계는 생성과 소멸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 변화무쌍한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홀로그래피의 이론과 시스템 이론은 부분과 전체는 따로 떼어서 논할 수 없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부분속에 전체가 있으며 서로 상호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본다면 신과학에서 주장하는 세계는 ‘色即空 空即色’ ‘不生不滅 不增不減’ ‘無盡緣起’ 등의 세계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신과학’ 어떻게 읽어야 하나

언어·논리초월 사고로 시대적 한계 극복을

현대물리학은 동양적인 사유, 특히 불교적인 사유를 통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현대는 가히 과학의 시대이다. 아무리 영생과 왕생극락을 이야기 하더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한 믿어지지 않는 게 요즘의 세태다. 그런 점에서 신과학 내지는 현대과학에서 주장하는 여러 이론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무적이다. 그러나 현대과학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에 대한 해석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이고, 특히 신과학에서 주장하는 세계관들이 일부의 영역에서 참인 것을 모든 영역에서 참이라고 확대해석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과학은 현대과학이든 신과학이든 시대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과학은 언어와 논리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불교는 언어와 논리를 초월해서 세계를 본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용택(과학사상 편집주간)

명사주선

불서 100선

‘선과 정신분석’

내가 20대의 한창 나이에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연한 불안에 잠 못 이루어 할 때 〈선과 정신분석〉이란 책을 나에게 띠의 정신세계를 처음으로 접하게 해주었으며, 우리가 그토록 천대시했던 불교사상의 우수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저자인 에리히 프롬은 저명한 사회심리학자로서 그의 저서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유로부터의 도피〉(사랑의 기술) 등은 당시 낙양(洛陽)의 지가(紙價)를 울린 바 있다.

다른 한사람의 공동저자인 일본인 스즈키 다이세쯔는 유려한 영어와 선의 실수(實修)를 바탕으로 서양에 대승불교와 선사상을 전파하는데 공이 큰 인물이며, R. 테마르티노도 선불교를 오래 연구한 미 콜롬비아대학 교수 출신의 저자이다. 번역자는 동국대의 김용정 교수로 그의 또 한편의 번역서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F. 카프카)〉은 오늘날

체인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과 밀착상통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필터는 의식화에 방해 받는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는 인간의 원천적인 죄의식 또는 사회적인 금기(타부)이며 그 외에도 논리의 간섭, 의식의 관념화(觀念化) 등을 들고 있다.

스즈키 다이세쯔는 선의 본질을 자기 존재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기술이며 속박으로부터 자유의 길을 일러주는 에네르기의 해방을



고영일 (공인회계사)

의식 불확실성 禪으로 해명 불교사상 우수성 드러낸 책

불자들이 꼭 읽어 볼만한 좋은 책으로 생각한다.

이 책에서 에리히 프롬은 정신분석과 선의 목표가 인간의 욕망과 권위로부터의 극복과 독립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프롬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의식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허구적이고 망상적이며 정확하게 현실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의식이 자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터를 통과해야만 하고 이 통과 과정에서 의식이 왜곡되거나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버린다고 한다. 이를 필터층

찾는 것은 인간이 의식을 언어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어떤 것을 말로 표현하지마자 하나의 소외현상이 일어나며, 온전한 경험은 이미 언어로 대체되어 있다고 프롬은 말한다. 이는 선의 의미

미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정으로 내가 어떤 꽃을 본다는 것은 내가 어떤 꽃이 되어 그 꽃과 같이 되는 것이며, 꽃과 같이 비를 맞고 햇빛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꽃으로 되고 꽃은 나로 되며, 나는 꽃의 모든 신비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결론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에리히 프롬의 독백을 소개하여 우리 불교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어떤 형태의 비합리적 권위도 없는 종교 또는 그 종교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인간을 모든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를 활동적으로 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어떤 것을 말로 표현하지마자 하나의 소외현상이 일어나며, 온전한 경험은 이미 언어로 대체되어 있다고 프롬은 말한다. 이는 선의 의미

‘불교 근현대사 자료집’ 곧 펴내

선우도량 출판 사업부 ‘금강경 간정기’도

선우도량 출판부(책임간사 법진)는 선우도량 소속스님들의 연구성과를 활발하게 출판하기로 하고 곧 〈금강경 간정기〉(연관스님) 〈화엄경 입법계품〉(도법) 〈어린이포교〉(철오) 〈한국불교근현대사 자료집〉을 펴낼 예정이다.

미라의 〈누구의 여인도 될 수 없나이다〉는 크리슈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의 언어로 가득하다. 이제까지 추상적이었던 신과 인간의 사랑이 미라의 시편을 통해 남녀의 사랑으로 구체화되었다.

가르비의 시 〈그가 있는 어디든 나는 있으리라〉는 신을 향한 한 직공(가르비)의 헌신과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은 감각속의 영혼을 통해서 영혼의 문을 열려는 탄탄적인 사랑이다.

〈그대는 너무 멀다〉는 젊은 날의 크리슈나무티가 남긴 시

들을 모은 것으로, 이데올로기와 교조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자아의 각성’만을 추구한 그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3권 모두 석지현스님이 번역했다.

민족사는 ‘영혼의 거장들이 남긴 시’ 시리즈 1차분 3권에 이어 〈기탄질리〉(밀리레빠) 〈한국선시〉 〈한산시〉 등 20권을 계속 펴낼 예정이다.

해의 포교 특집 꾸며 ‘다보’ 여름호 발행

불교종합 학술정보지 계간(다보) 여름호(통권 14호)가 나왔다. 대한불교진흥원 펴냄. ‘특별기획’ 해의 불교포교의

새로나온 책.....

▲비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간들 무엇하리(윤청광 지음)=고승열전 시리즈 11권째로 조계종 초대종정에 추대된(1936년) 한암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엮었다. 한암스님은 50세에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남긴 학이 될지언정 삼촌에 말갈하는 영무세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맹세하고 오대산 성원사에 안거하여 입적할 때까지 참선에만 몰두하였다. 〈언어문화사, 6천원〉

현주소와 불교의 국제화 △해외포교 현황(강건기) △해외 불교포교의 실태(원명) △국제포교시대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대책(보광) ‘결집 3000-21 세기의 불교’ △가정윤리(최봉수) △미래의 문화(허균·이근우) △정보사회와 인간의 가치(이정) ‘세계불교 동향과 종교적 관용’ △불교의 사회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의 특성 △불교의 7대특성 ‘지상중계’ 불교신앙, 그문제와 방향 ‘인물담구’ 틱낙한(김형균).

이밖에 자료로 교계 행사일지 및 보도자료, 불교관련 방송비평, 한국불교관계 논저 종합백인을 실었다. 5천원

▲부처님의 전생이(신지우 엮음)=부처님의 전생을 기록한 〈자타카〉에서 52편을 가려뽑아 일반인들도 〈자타카〉의 가르침을 쉽게 알도록 꾸렸다. 중생을 건지오리, 번뇌를 끊으시오, 법문을 배우오리, 불도를 이루오리 등 4장으로 구성했다. 〈불교시대사, 6천원〉

▲비림부는 날에는 너에게로 가고싶다(황청원 지음)=89년 〈떠돌이 별로 떠서〉를 펴낸 이후 6년만에 내놓는 황청원 시인의 네번째 시집.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책만드는집, 3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선 100문100답	진 제	과관나라
2	영가천문법어	석성우	보림
3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 타	효림
4	부처님 말씀	성 열	법등
5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낙한	장경각
6	하산	홍 주	불지사
7	서양에서 본 불교	미네시메에	불교시대사
8	연관문화	장 지연	부다가야
9	금강경 강의	무 비	불광
10	42장경	라즈니쉬	성 하

구입문의: (02)737-0695

임·현·담·메·티·칼·에·세·이

호명출판

이 책이 나오자 불교계는 긴장했고, 가톨릭은 당혹했다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5대 일간지가 격찬한 화제의 책!



“가톨릭 의사가 「삶과 죽음」의 화두로 불교청지 히말라야·인도로 빨려 들어갔다”

방사신과 전문의 임현담

호명출판 TEL: 756-0262 FAX: 756-0264 신국판/304쪽/6,000원 지금 전국 유명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②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편저

민족 문화의 과거·현재·미래가 만나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전통 사찰입니다.

‘사찰문화연구원’은 전통 사찰의 연혁, 실화와 전설, 문화재, 그 사찰의 신앙적 성격을 방대한 자료 수집과 세밀한 고증으로 그 속에 녹아든 불교의 참 정신과 민족 문화의 원형질을 ‘전통사찰총서’에 생생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찰 속에 깃든 한민족 문화의 뿌리 찾기

방대한 자료와 철저한 고증에 의한 정통 사지

전통사찰총서 1·강원도 I

강릉시 외 11개 시군의 유물·유적 총람 / 원정사의 36개 전통사찰·절터의 장건 설화, 문화재, 대표적 수행자, 성보의 불교 문화사적, 신앙적 의미 해설 / 문화부지정, 강원도 소재 전통 사찰 목록 / 담·부도·석비·불교 건축물의 부분 명칭 268쪽/신국판(사지 262매 수록) / 책값 : 7,500원

전통사찰총서 2·강원도 II

속초시 외 5개 시군의 유물·유적 총람 / 신성사의 19개 전통사찰(수록 내용과 체계는 ‘강원도 I’과 동일) 252쪽/신국판(사지 267매 수록) / 책값 : 7,500원

전통사찰총서 3·경기도 I

안양시 외 9개 시군의 문화재 특성 개관 / 용주사의 45사찰·절터의 모든 것 / 불교문화재 목록 / 절터 목록 / 불교 금석문 362쪽/신국판(사지 217매 수록) / 책값 : 10,000원

전통사찰총서 4·서울

서울의 역사·문화 개관 / 각 구의 문화적 특성 / 54개 전통 사찰의 모든 것을 구별로 나누어 정리 / 서울 소재 불교문화재 목록 / 서울 전통 사찰 주소록 472쪽/신국판(사지 297매 수록) / 책값 : 10,000원

전통사찰 5. 경기도 II 편이 8월말 발간 예정입니다.

공급 불교서적 전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 제작·발행 사찰문화연구원 02-566-4709